

겨울방학, 폭죽·불꽃놀이 조심해야



겨울방학 기간 꽃불과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 속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바 부모와 아이들은 특히 중시를 돌려야 한다.

‘서창발표’에 따르면 2024년 2월 12일 15시 43분, 서창시 마도가 두판사저 가원사화구역에서 삼림화재가 발생했는데 각급, 각 류형 일군 213명이 전력을 다한 끝에 당일 18시경에 화재를 진압했다.

조사 결과 서창시 한 소학교의 길호모모(남, 이족, 현재 나이 9세)가 리자모모(남, 이족, 현재 나이 9세), 사모모(남, 이족, 현재 나이 14세)와 함께 마도철도공안처 가족구역 뒤에서 불꽃놀이를 하다가 잡초에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했으며 화재 면적은 약 0.3헥타르에 달해 경제적 손실이 30만원에 달했다.

2024년 3월 10일, 서창시 개원항 개원촌 2조 촌민 사모모(남, 이족, 현재 나이 9세), 진모(남, 이족, 현재 나이 9세), 진모모(녀, 이족, 현재 나이 11세), 아종모모(남, 이족, 현재 나이 6세)는 유

통회축향 미국어당 옆 산골에서 양을 방목할 때 여러차례나 라이타로 나무가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놀았다. 16시 50분, 여섯번째로 나무가지에 불을 붙였는데 바람이 강해지면서 화재가 발생해 각급, 각 류형 일군 410명이 전력을 다한 끝에 당일 화재가 모두 진압되었다. 화재면적은 9.4397헥타르에 달하고 경제손실 115만원을 초래했다.

국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사건에 연루된 인원들의 보호자들에게 화재손실 115만원을 배상하도록 요구했다.

아이들이 홀로 꽃불이나 폭죽을 터뜨려 화재와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군중들은 이를 교훈으로 삼아 아이들이 꽃불과 폭죽을 터뜨릴 때 반드시 옆에서 지켜보는 동시에 아이의 안전 의식도 강화시켜야 한다.

이외 음력설 기간이면 꽃불과 폭죽 터뜨리기, 제사와 성묘 등 야외에서 불을 사용하는 일이 크게 증가하는데 삼림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꼭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인민넷-조문판

리혼을 빌미로 집행을 도피하다니

성실신용은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이며 엄중한 신용 상실 행위는 형사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다. 현실 생활에서 어떤 사람들은 혐의리혼을 통해 재산을 이전하고 집행을 거부하려고 시도하는데 이는 집행 신청인의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법권위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근자에 공동으로 발표한 전형사례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사건이다. 한편의 민간대출 분쟁에서 왕모는 법원으로부터 대출금 50만원과 리자 4만원을 상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에서 확정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왕모는 강제집행 통지서를 받

았지만 오히려 안해 왕모모와 함께 재산을 빼돌릴 궁공이를 꾸렸다. 두 사람은 다음날 리혼 절차를 밟고 모든 재산을 왕모모에게 이전했으며 모든 채무는 왕모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 6월, 왕모는 법률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 의해 15일간 구류되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또 왕모가 강제집행 과정에서 돈을 도박에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2022년 8월, 법원은 왕모와 왕모모가 판결 및 재정(裁定)을 집행하지 않은 죄로 왕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하고 왕모모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신화넷

길림성 교통경찰 음력설 교통안전 보장

루계로 5만명의 경찰력, 1만 6,000대의 경찰차 출동

올해 음력설 연휴 기간 전 성의 자동차 이동 차수는 루계로 1,300만차를 넘었다. 그중 고속도로 이동 차수는 760만차에 달했다.

음력설 연휴 기간 길림성공안청 교통관리총대는 각지 교통경찰부문을 조직, 배치하여 루계로 5만명의 경찰력, 1만 6,000대의 경찰차를 출동시켜 안전보장에 전력을 다했는데 바 비교적 큰 교통사고와 장시간의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안교통경찰의 ‘고생지수’를 대중들의 ‘행복지수’로 바꾸었다.

길림성공안청 교통관리총대 지휘 중심은 매 1시간마다 자동차 이동량, 도로상황, 사고동태를 통제했고 매 2시간마다 각지의 날씨, 자동차 이동량, 도로상황, 사고 등에 대해 배치했다.

각지 교통경찰부문은 고등급 근무를 엄격히 집행하고 157개의 교통경찰집행소를 가동했으며 467개에 달하는 립시근무소를 증설했다. ‘기관은 지지를 지원하고 도시는 도로를 지원한다’는 요구에 따라 시와 현 2급 교통경찰부문은 연인수로 경찰력 7,200명을 지원했다.

또한 보험회사와 연합하여 33개의 신속 배상 봉사소를 설치하고 308건의 교통사고를 신속하게 해결

했으며 20차례에 달하는 교통 최고봉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 각지는 중점적으로 도시, 출입구 및 50개 인기 관광지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사람과 차량의 분류, 단계별 통행, 시간 배정 최적화 등 조치를 취하여 과학적으로 자동차 이동을 통제하고 인도했다.

길림성공안청 교통관리총대는 교통, 길림성고속도로집단유한회사 등 부문과 협력하여 인원, 차량, 장비를 주요 도로구간에 미리 배치했다. 제설작업 641회, 연합근무순찰 1,329회를 실시하여 도로의 정밀한 통제와 단계적 통행을 지도하고 주민들의 이동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켰다.

전 성 각지는 음주운전 집중정돈 등 전문 정돈 행동을 전개하고 전전 후, 전 구간에서의 교통위법을 엄격히 조사했으며 경미한 위법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다. 연휴 기간 전 성적으로 음주운전 137건, 피로 운전 44건, 정원초과 과적 96건, 과속 3,175건을 적발하여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했다.

음력설 연휴 기간에 전 성 차량관리소 창구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았고 연인원 3,000명에게 봉사를 제공했다. /연변교통

매하구 경찰, 12시간 만에 관광객 휴대전화 찾아주어

“매하구는 경치도 아름답지만 사람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인민경찰의 로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상해 관광객이 매하구시에서 여행하던 중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현지 경찰은 신속한 행동과 세심한 조사를 통해 12시간 만에 휴대전화를 찾아 본인에게 돌려주었다.

2월 4일 밤 10시 14분, 상해 관광객 려씨는 매하구시에서 여행하던 중 휴대전화를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휴대전화에는 많은 사업파트너들의 연락처와 중요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었다.

려씨에 따르면 2월 4일 저녁 8시 20분경 매하구시 지북촌에서 택시를 타고 철북가의 락구고집으로 향했고 차에서 내린 후 얼마 되지 않아 휴대전화를 택시 뒤좌석에 두고 내린 것을 발견했다. 이튿날 오후 2시에 상해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려씨는 매우 초조했다.

/오건기자

매하구시공안국 철북파출소 경찰들은 신고를 받은 후 즉시 세밀한 조사를 거쳐 려씨가 탄 택시와 휴대전화 분실된 대략적인 시간을 찾아냈다. 그러나 이미 깊은 밤이었기에 수색작업을 펼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철북파출소 소장 진옥은 경찰 황만초, 류준정 및 보조경찰 장진우를 이끌고 밤새도록 군중들을 방문하며 영상자료를 수집했다. 관건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들은 자세한 분석 끝에 최종 휴대전화를 주는 마녀사를 찾아냈다.

2월 5일 오전 10시 5분, 잃어버렸던 휴대전화를 되찾은 려씨는 파출소의 인민경찰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는 “이번 경험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과 신뢰를 느끼게 했으며 매하구 경찰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사업태도에 감동했다.”며 감개무량해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한국서 배우자의 외도, 리혼 여부 관계없이 위자료 청구 가능

한국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리혼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국 법무법인 자유측이 기자에게 밝혔다.

한국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배우자는 물론 외도 상대방(상간자)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1. 법적 근거 및 판례
법무법인 자유측은 “한국 <민법> 제 750조(불법행위) 및 제 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 대법원은 “부부가 리혼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으며 부정행위의 범위에 대해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명확히 하였다(한국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 68 판결 참조).

또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고의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해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한국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

므 1890 판결, 한국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 1434 판결 참조).

2. 부정행위의 범위
한국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단순한 간통을 넘어 다양한 행위를 포함한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배우자 아닌 이성과의 부적절한 만남 및 교제
- 함께 숙박업소 출입
- 배우자와 상간자의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
- 려행 내역 및 다정한 모습의 사진이나 영상
- 호텔 려수증 또는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그러나 단순한 이성애에 대한 호감, 혼전 동거,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자의에 의하지 않은 행위 등은 법적으로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3. 리혼 없이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리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한국 <민법> 제 806조 및 제 843조에 근거하여 리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대신 리혼 없이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한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
-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상간자의 고의성

4.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간자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나 SNS 대화 내용
- 숙박업소 출입 기록
- 사진 및 영상 자료
- 려행 일정 및 호텔 려수증

최근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정확한 증거 수집이 가능해졌으나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자유측은 강조했다.

5. 위자료 청구 시효 및 법적 근거

위자료 청구권은 한국 <민법> 제 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례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례: 외도 사실을 확인한 날, 증거를 확보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송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하

게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례에 따르면 혐의리혼의 경우에는 리혼 신고일, 재판상 리혼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된다(한국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 2251,2268 판결 참조).

6. 소송 진행 시 류의사항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는 단순히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지에 대한 입증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청구 시 효과 및 한계

법무법인 자유 최필재변호사는 “리혼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위자료 청구가 배우자의 행동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수 있는지는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각 가정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배우자의 외도는 가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이며 법적으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리혼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충분한 증거 확보와 법률적 조언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유경봉기자
관계전화: 13604447151



연길시인민법원, 주민들 걱정거리 해결

모 주택단지의 가옥소유증 문제 적극 해결

“다년간의 걱정거리를 해결했습니다.”

일전 연길시 모 주택단지 입주위원회는 연길시인민법원을 찾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료해에 따르면 해당 주택단지는 려사적으로 남겨진 문제로 줄곧 가옥소유증을 속속하지 못했다. 따라서 주민들은 주택거래나 자녀 입학, 대출 담보 등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입주들은 수차 관련 부문을 찾아 문제를 반영했지만 상황이 복잡하고 지속되는 면이 많아 시종 해결을 보지 못했다. 최종 입주들은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연길시인민법원 담당 법관은 사건을 접수한 후 해당 주택단지의 상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즉시 해당 상황을 상급 지도부에 반영했다. 법

원 지도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깊은 중시를 돌리고 담당 부원장이 직접 나서서 인력을 조직하고 사회구역에 내리가 조사연구하면서 문제의 전망을 자세히 파악했다. 법원 사업일군들은 관련 부문과의 소통을 통해 해당 주택단지의 가옥소유증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률과 정책 면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위해 법원측은 수차 전문회의를 소집하고 해결책을 연구했으며 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자연자원국, 세무 등 부문과 적극 려동했다.

끈질기게 사건 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법률법규를 검토한 끝에 사업일군들은 마침내 해결방안을 찾아냈고 입주들은 드디어 오매불망 고대하던 가옥소유증을 받아주게 되었다. /연변라디오 TV넷

친척 사이에 넘지 못할 고비는 없다

도문시인민법원 친척간 임대료 분쟁 해결

“그는 임대료를 전혀 주지 않고 미루기만 하는데 이것은 행패가 아닙니까?” 이는 당사자인 진모가 도문시인민법원에 신소하러 왔을 때 가장 많이 한 말이다.

료해에 따르면 진모가 고소한 피고인 리모는 그와 친척관계라고 한다. 진모는 가게를 리모에게 양도했지만 쌍방은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결국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다.

사건을 접수한 담당 법관은 진모가 단지 하나의 차용증만 제출하고 채권자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구체적인 임대 시기에 대해서 쌍방은 서로 다른 주장을 했으며 유효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임대 기간을 알 수 없어 임대료도 확정할 수 없었다. 이에 담당 법관은 이전 가게의 경영자를 제3자로 추가하고 가게가 위치한 사회구

역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각 임대시간대의 실제 경영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담당 법관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차례 진모, 리모와 려락하면서 쌍방에 대한 조정을 조직했다. 담당 법관의 노력 끝에 쌍방은 조정 의견에 합의하고 ‘상환계획서’를 작성, 이번 분쟁을 마무리지었다.

“친척 사이에 넘지 못할 고비가 어디 있었습니까?” 조정합의를 달성한 후 법원은 감개무량해 말했다.

분쟁을 해결하려면 엄격한 법 조항 뿐만 아니라 인내심 있는 소통도 필요하다. 최근년간 도문시법원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건을 최선을 다해 처리함으로써 인민대중들로 하여금 공평정의가 신변에 있음을 절실히 느끼게 했다.

/연변라디오 TV넷